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경애*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Kyeong-Ae Jang*

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0.884$), 임상실습 만족도($r=0.876$), 임상수행능력($r=0.84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796$)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p<0.001$), 셀프리더십($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시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임상실습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clinical competence and factors related to compet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is study performed a survey on such an issue from March 2 to June 12, 2015 for 329 dental hygiene students who were residing in Busan and Ulsan. In the result by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 there is the highest score in the satisfaction of the critical thinking, self-leadership,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The critical thinking reveal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lf-leader ship($r=0.884$) and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r=0.845$). Whereas the self-leader ship show the negative relation with stress in clinical practice($r=-0.796$).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on the clinical compet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was critical thinking($p<0.001$), followed by self-leadership($p<0.01$)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p<0.01$). In results, the critical thinking, the self-leader ship and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have an effects on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teaching learning strategy and the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 ship should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for the systematic and convergence program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ability of clinical performance.

• **Key Words** : Self-Esteem, Dental Hygienist, Emotional Labor, Exhaustion, Self Leadership, Clinic Practice Ability

*교신저자 : 장경애(jka@silla.ac.kr)

접수일 2015년 10월 6일

수정일 2015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흐름에 따라 건강과 구강건강에 관심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최근 의료현장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능숙한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치과위생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에 치위생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다양한 사례중심형으로 변화하여 실무에서 질 높은 치위생업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은 치위생교육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능력수준을 평가 받는 중요한 부분이다.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와 통합체로 학생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 변화를 주어 치과위생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직접적인 교육이 된다고 하였다[1]. 또한 활동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역점을 둔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 활동 현장과의 격차를 최소화 줄일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해 치위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 상황에 맞는 실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 이에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3].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동, 사고방식과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을 말한다[3]. 즉 스스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며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4]. 정[5]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와 지지를 통해 자신을 더욱 존중하는 사고를 갖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이 역량있는 치과위생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양과 문[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대처함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6].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7,8], 셀프리더십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과정, 대학생활 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임상실습 교육에서 셀프리더십은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0]. 하지만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위생(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융합적인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융합적인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치위생(학)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차이를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치위생(학)과에서 임상현장실습 교육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참여로 서면에 동의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340명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1명을 제외한 최종 329명(96.7%)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박 등[2], 서와 박[11], 권[12]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학업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으로 구분된다. 학업적 특성의 세부 요인은 성적수준, 대학생활의 만족도, 치위생(학)전공의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의 α 계수는 비판적 사고성향 0.962, 셀프리더십 0.975, 임상실습 만족도 0.977, 임상실습 스트레스 0.971, 임상수행능력 0.972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3 분석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알아보았고, 조사대상의 학년별, 성적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각 주요연구 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은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Cox와 Snell의 값을 이용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예측력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363명의 대상자 중 3학년 68.0%, 4학년 16.5%, 2학년 15.4%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중 50.7%, 하 25.3%, 상 24.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 52.3%, 만

족한다 33.6%, 만족하지 않는다 14.1%순으로 나타났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39.4%, 보통이다 36.9%, 만족하지 않는다 23.7%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rade	2 nd	56	15.4
	3 rd	247	68.0
	4 th	60	16.5
Achievement	Good	87	24.0
	Average	184	50.7
	Poor	92	25.3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ied	122	33.6
	Usually	190	52.3
	Dissatisfied	51	14.1
Satisfaction of the majors	Satisfied	143	39.4
	Usually	134	36.9
	Dissatisfied	86	23.7

3.2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학년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4학년이 3.72점, 3학년 3.30점, 2학년 3.09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4학년 3.95점, 3학년 3.27점, 2학년 3.21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4학년 3.79점, 3학년 3.45점, 2학년 3.17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 2.70점, 3학년 2.65점, 4학년 2.38점순으로 나타났다($p<0.05$).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4학년 3.91점, 3학년 3.34점, 2학년 3.13점순으로 나타났다($p<0.001$).

<Table 2>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grade

Variables	Grade	M±SD	F	p
Critical thinking	2 nd	3.09±0.41 ^a	19.037	$p<0.001$
	3 rd	3.30±0.89 ^a		
	4 th	3.72±1.06 ^b		
Self-leadership	2 nd	3.21±1.17 ^a	14.250	$p<0.001$
	3 rd	3.27±0.43 ^a		
	4 th	3.95±1.57 ^b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 nd	3.17±0.61 ^a	13.487	$p<0.001$
	3 rd	3.45±1.00 ^b		
	4 th	3.79±1.19 ^c		
Stress in clinical practice	2 nd	2.70±0.44 ^b	3.460	0.033
	3 rd	2.65±1.11 ^b		
	4 th	2.38±1.34 ^a		
Clinical competence	2 nd	3.13±0.47 ^a	29.771	$p<0.001$
	3 rd	3.34±0.90 ^b		
	4 th	3.91±0.95 ^c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a $p<0.05$, ^{***} $p<0.001$

3.3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상 4.02점, 중 3.19점, 하 2.54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상 4.29점, 중 3.40점, 하 2.38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상 4.16점, 중 3.36점, 하 2.43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하 3.35점, 중 2.66점, 상 1.92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상 4.09점, 중 3.23점, 하 2.66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Table 3>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records

Variables	Achievement	M±SD	F	p
Critical thinking	Good	4.02±0.52 ^c	203.862	p<0.001
	Average	3.19±0.38 ^b		
	Poor	2.54±0.60 ^a		
Self-leadership	Good	4.29±0.77 ^c	180.659	p<0.001
	Average	3.40±0.41 ^b		
	Poor	2.38±0.86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4.16±0.57 ^c	185.090	p<0.001
	Average	3.36±0.42 ^b		
	Poor	2.43±0.83 ^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Good	1.92±0.59 ^a	100.748	p<0.001
	Average	2.66±0.47 ^b		
	Poor	3.35±0.97 ^c		
Clinical competence	Good	4.09±0.63 ^c	163.853	p<0.001
	Average	3.23±0.48 ^b		
	Poor	2.66±0.46 ^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p<0.001

3.4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53점, 보통 3.13점, 불만족 2.82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만족 3.61점, 보통 3.31점, 불만족 2.95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63점, 보통 3.29점, 불만족 2.66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불만족 2.81점, 보통 2.68점, 만족 2.53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68점, 보통 3.11점, 불만족 2.89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Table 4>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Variables	Satisfaction of campus life	M±SD	F	p
Critical thinking	Satisfied	3.53±0.95 ^c	23.977	p<0.001
	Usually	3.13±0.30 ^b		
	Dissatisfied	2.82±0.50 ^a		
Self-leadership	Satisfied	3.61±1.35 ^c	10.241	p<0.001
	Usually	3.31±0.35 ^b		
	Dissatisfied	2.95±0.51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63±1.06 ^c	27.357	p<0.001
	Usually	3.29±0.36 ^b		
	Dissatisfied	2.66±0.85 ^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53±1.20 ^a	2.427	0.090
	Usually	2.68±0.42 ^{ab}		
	Dissatisfied	2.81±0.39 ^b		
Clinical competence	Satisfied	3.68±0.88 ^c	37.549	p<0.001
	Usually	3.11±0.44 ^b		
	Dissatisfied	2.89±0.49 ^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p<0.001

3.5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47점, 보통 3.04점, 불만족 2.99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셀프리더십은 만족 3.60점, 보통 3.16점, 불만족 3.13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58점, 보통 3.10점, 불만족 3.05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 2.94점, 불만족 2.66점, 만족 2.57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58점, 보통 3.09점, 불만족 3.01점순으로 나타났고($p<0.001$).

<Table 5> The variation of the research parameters by the satisfaction on the major

Variables	Satisfaction of the majors	M±SD	F	p
Critical thinking	Satisfied	3.47±0.86 ^b	19.766	p<0.001
	Usually	3.04±0.24 ^a		
	Dissatisfied	2.99±0.41 ^a		
Self-leadership	Satisfied	3.60±1.21 ^b	9.884	p<0.001
	Usually	3.16±0.37 ^a		
	Dissatisfied	3.13±0.42 ^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58±0.97 ^b	16.406	p<0.001
	Usually	3.10±0.36 ^a		
	Dissatisfied	3.05±0.66 ^a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57±1.09 ^a	2.258	0.106
	Usually	2.94±0.47 ^b		
	Dissatisfied	2.66±0.37 ^{ab}		
Clinical competence	Satisfied	3.58±0.85 ^b	26.058	p<0.001
	Usually	3.09±0.46 ^a		
	Dissatisfied	3.01±0.45 ^a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p<0.001

3.6 주요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 3.47점, 보통 3.04점, 불만족 2.99점순으로 나타났고($p < 0.001$), 셀프리더십은 만족 3.60점, 보통 3.16점, 불만족 3.13점순으로 나타났다($p < 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3.58점, 보통 3.10점, 불만족 3.05점순으로 나타났고($p < 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 2.94점, 불만족 2.66점, 만족 2.57점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 3.58점, 보통 3.09점, 불만족 3.01점순으로 나타났다($p < 0.00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parameters

Variables	Critical thinking	Self-leadership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				
Self-leadership	0.884**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876**	0.846**	-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773**	-0.796**	-0.778**	-	
Clinical competence	0.845**	0.808**	0.799**	-0.693**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1$

3.7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p < 0.001$), 셀프리더십($p < 0.01$), 임상실습 만족도($p < 0.01$)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ritical thinking	0.500	0.073	0.488	$p < 0.001$
Self-leadership	0.172	0.052	0.222	0.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165	0.055	0.192	0.003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008	0.044	0.009	0.852

F=228.119, $p < 0.001$, $R^2 = 0.735$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5$).

4. 논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융합적 치위생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분석하였다.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3학년,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3학년과 4학년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5$). 신 등[13]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적이고 다양한 상황별 임상실무교육의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고 관찰 위주의 임상실무교육이 치위생기사를 적용할 기회가 늘어나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성적 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중, 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01$). 도와 서[14]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성적이 상인 학생들이 임상수행 과정시 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실무과정을 소화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고, 보통, 불만족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01$). 서와 박[11]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참여를 격려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보통, 불만족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불만족,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등[15]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는 훈련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6].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고[16,17], 임상학기가 진행할수록 반복적인 현장실습 경험에 의한 실수를 감소시켜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8]. 따라서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무 교육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임상실무교육 과정시 상황별 다양한 실습으로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융합적인 관점에서 지도 하여야 한다.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 < 0.01$),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 < 0.01$),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01$).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16,19,20]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대처유형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21]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력과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무 교육과정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될수 있는 치위생교육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전체 치위생(학) 전공 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본추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융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임상교육과정시 융합적 치위생교육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사되어 총 3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년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 < 0.05$).
2. 성적수준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성적 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 < 0.001$).

3.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4. 전공 만족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변이에 대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5.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0.884$), 임상실습 만족도($r=0.876$), 임상수행능력($r=0.845$)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796$)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p<0.001$), 셀프리더십($p<0.01$), 임상실습 만족도($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시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융합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임상실습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J. R. Park, "Chara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nd their Attitude on Clinical Training",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of Kyungpook, 1991.

[2] J. W. Kim, C. J. Kim, Y. S. Kim, M. S. Yoo, H. R. Yoo, S. M. Chae, J. A. Ahn,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dership on Crit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Medical Education, Vol. 24, No. 3, pp. 223-231, 2012.

[3]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s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4]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5] T. H. Jung, "Effects of Self Leade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2, No. 1, pp. 223-248, 2005.

[6] N. Y. Yang, S. 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33-42, 2013.

[7]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7-394, 2011.

[8]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 Nursing, Vol. 18, No. 1, pp. 71-78, 2011.

[9] J. Y. Lee, M. H. Cho,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 Vol. 13, No. 3-4, pp. 241-253, 2012.

[10] G. A. Seomun, S. O. Chang, K. H. Cho, S. J. Lee,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1, pp. 151-158, 2006.

[11] B. M. Seo, H. J. Park,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8, No. 4, pp. 149-61, 2014.

[12] S. B. Kwon,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on the Professional Roles

Improvement of Dental Hygienis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Dankook, 2010.

[13] K. R. Shin, J. Y. Ha, K. H. Kim, “A longitudin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5, No. 2, pp. 382-389, 2005.

[14]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 Nursing, Vol. 21, No. 3, pp. 283-291, 2014.

[15]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39-347, 2011.

[16]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6, No. 3, pp. 695-706, 2015.

[17]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53-61, 2012.

[18] J. D. Lee, C. S. Lee, “The Effect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434-443, 2006.

[19]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20]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05-117,

2013.

[21] K, A. Jang, H, S, Lee, “Factors Affecting the Esteem of a Convergenc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78-186, 2015.

저자소개

장 경 애(Kyeong-Ae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보건학박사)
 - 2011년 3월~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구강영상학